

2021년 4월 2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 21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4. 21(수)	담당부서	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윤성혁 과장(044-203-4210)	담당자	권용균 사무관 (044-203-4216) 허유석 사무관 (044-203-4205)

산업부, K-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

- 기업의 평가부담을 줄이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ESG 지표 초안 공개 -
-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중 K-ESG 지표 발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ESG 경영에 관심이 많은 주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「K-ESG 지표 업계 간담회」를 4.21일(수) 개최하였음

○ 이는 지난 3.31(수)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님께서 언급하신 바 있는 ESG 표준화 작업의 일환으로

- 본 회의에서 최초로 지표 초안이 공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업계와의 소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

< K-ESG 지표 업계 간담회 개요(붙임 1) >

- (일시/장소) '21.4.21(수), 15:00~16:30 /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
- (참석) (정부)산업부 산업정책관(주재), (업계)삼성전자·현대차·LG전자·SK, (기관)대한상의·KOTRA 등
- (주요내용) K-ESG 지표초안 설명 및 토론

□ 산업부는 공신력 있는 ESG 평가 필요성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20.4월부터 한국생산성본부*·전문가 등과 함께 「산업발전법**」에 근거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ESG 지표를 준비·마련해왔음

* 법 제19조⑤상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(19년~)
** 법 제18조① : "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·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및 지표" 설정·운영

○ 업계는 현재 국내외 600여개의 평가지표가 운용되는 등 평가기관이 난립하고 있어 평가대상인 기업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

- 또한, 평가기관마다 세부항목·내용이 다르다 보니 동일한 기업에 대해 상이한 평가가 발생하고 있다며, 지표마다 다른 평가결과가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

○ 이와 함께, 해외 ESG 지표는 우리나라의 경영환경·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국내기업에 역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상황에 적합한 ESG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

* 예) 해외 지표의 경우 기업의 인종 다양성에 대해 평가 → 그러나,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 비율이 EU,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

□ 이번 K-ESG 지표 초안은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하여 도출한 핵심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마련되었고,

○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정보공시·환경(E)·사회(S)·지배구조(G) 분야별 문항비중을 균형 있게 구성하였음

< 분야별 대표 문항 >

구분	대표 문항 내용	문항
정보공시	·ESG정보 대외공개 방식은? ·ESG 정보공개 주기는?	5
환경(E)	·재생에너지 사용량? ·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(매출액 기준)는?	14
사회(S)	·정규직 비율은? ·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은?	22
지배구조(G)	·이사회 내 여성 인력 수? ·내부비위 발생현황 및 공개 여부?	20
합계	·정보공시(5개), 환경(14개), 사회(22개), 지배구조(20개)	61

□ K-ESG 지표는 여타 ESG 평가지표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 동시에, 기존 국내외 주요지표와의 높은 호환성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ESG 평가 대응능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○ 산업부는 ESG 지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보완작업을 통해 올 하반기 최종적인 지표를 발표할 계획

- 특히, ESG 경영에는 관계부처·기업·평가기관·투자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여러 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

- 오늘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“현재 다양한 ESG 평가 관련 다양한 지표가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성격의 K-ESG 지표가 마련되어 시장의 혼란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발언
 - 다만, “실효성 있는 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표가 금융·투자, 더 나아가 해외의 우수 평가지표와 상호 인정되어 널리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.”고 언급
- 이에 대해, 황수성 산업정책관은 “동 지표는 기존 평가지표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새로운 평가지표가 아니라, 기업과 여러 ESG 평가기관 등에게 가이드선 성격으로 제공되는 표준형 지표이며,
 - 동 지표가 국내외 여러 사용처에 활용되어 기업이 ESG 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.”고 밝힘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권용균 사무관(044-203-42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「K-ESG 지표 업계 간담회」 회의 개요

1. 추진배경

-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및 ESG 표준·인센티브 마련으로 '21년을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아 '따뜻한 자본주의'의 시대를 열 필요
 - * “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·사회·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” (21.3.31, V 상공의 날 기념사)
- 국내외 600여개 ESG 지표가 난립하여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
 - 공신력 있으며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평가지표 마련 필요

2. 행사개요(안)

- (목적) 한국형 ESG 지표(K-ESG) 개발현황 공유 및 업계의견 청취
- (일시/장소) '21.4.21(수), 15:00~16:30 / 대한상의 중회의실A
- (참석) 산업부 산업정책관(주체), KPC 및 업계·학계 등 20여명
 - * (업계) 삼성전자, 현대차, LG전자, SK, CJ제일제당, 아모레퍼시픽, 풀무원 등
 - * (학계) 한국전력경영학회,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
 - * (기관) 한국생산성본부(KPC,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), 대한상공회의소, KOTRA 등

3. 세부 프로그램

시 간(분)		내 용	비 고
15:00~15:05	5'	인사 말씀	산업정책관
15:05~15:15	10'	K-ESG 개발목적 및 방향	김동수 단장(KPC)
15:15~15:25	20'	K-ESG 지표(안)	이재혁 교수
15:25~16:25	50'	토론 및 질의응답	참석자 전원
16:25~16:30	5'	마무리 말씀	산업정책관

붙임 2

「K-ESG 지표」 주요 내용(안)

	분 류	세부 내용
정보공시 (5개 문항)	정보공시	지속가능경영 정보공개 방식, 사업장 범위, 목표
환경 (14개 문항)	환경경영 정책	환경정책 및 조직, 기후변화 대응 등
	환경경영 성과	친환경 비즈니스, 폐기물 배출량·재활용률 등 환경경영 성과, 이해관계자 소통 등
	환경경영 검증	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 등
	법규준수	환경 법규 위반
사회 (22개 문항)	사회책임경영 정책	사회책임경영 전략 및 목표 등
	임직원	임직원 다양성, 채용 등
	인적자원관리	임직원 교육, 역량 개발 등
	근로환경	사업장 안전관련 사항 등
	인권	인권정책, 교육 등
	협력사	공급망, 동반성장 관련 성과 등
	지역사회	지역사회 사회공헌 참여 및 활동 등
	정보보호	개인정보보호 현황 등
	법규준수	사회 부문 법규 위반
지배구조 (20개 문항)	이사회	이사회 다양성, 활동 등
	주주	주주권리, 배당 등
	소유구조	소유구조 등
	윤리경영 및 반부패	윤리경영 및 반부패, 준법 현황 등
	감사	감사기구 관련 등
	법규준수	지배구조 법규 위반